

이재명 추격 받는 이낙연...내부선 “민주당 지지층서 앞서”

여론조사 격차 줄어...현안 해결 비전·리더십 최대 변수
사이 호남표·역선택 가능성 주목...내일 이재명 면담 관심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의 대권 경쟁구도가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인 독주 체제를 유지해 오던 이 의원 측은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다”며 “전대 승리를 계기로 잠시 주춤했던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어드는 격차=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결과 이 의원의 지지율은 28.4%, 이 지사는 21.2%로 각각 집계됐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23~25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가 이 의원 24%, 이 지사 2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여전히 1위, 이 지사는 2위를 유지했지만 이 지사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전후해 지지도가 근접할 정도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오히려 위기감을 키우고 이 지사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이 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며 “당내 경쟁력”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역선택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가 통합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오히려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 태풍의 눈처럼 숨을 죽이고 있는 호남 민

심의 폭발성을 거론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지역 프레임에 고려,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대선 경선 등에서 호남은 물론 수도권 등에서 폭발적인 응집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의 핵심 측근인 이개호 의원은 2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은 서로에게 상승 효과를 낼 것이며 민주당 등 여권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의 비전과 리더십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전과 리더십=정치권에서는 결국 현안 이슈를 풀어나가는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대권 경쟁 구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이슈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 국정현안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방안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제안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겐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서두르기 보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차분히 준비해 안정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뜨거운 갑자진 신공항 문제와 관련, “부산이 유라시아의 시종착점이자 태평양 관문으로 완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되려면 ‘가덕신공항’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남지사 시절부터 자신이 생각했던 남해안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남해안 벨트를 성장시키고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 결을 위해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면 관광 분야는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의제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당권 경쟁에 따라 지방 현상 행보에 나선 이 의원은 30일 경기도 방문을 계기로 이 지사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동·서부권에 각각 의대 들어서야”

정부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0년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이 눈앞에 다가온 전남도가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면 관광 분야는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의제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당권 경쟁에 따라 지방 현상 행보에 나선 이 의원은 30일 경기도 방문을 계기로 이 지사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과 도민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소 정원 100명 이상 확보돼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 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서 최신 의료 시설로 도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과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지역국회의원, 지역단체 등이 전남에 신규 설립되는 의대를 목표대와 순천대에 각각 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또 “공익직불제가 4594억원이 편성돼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농업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익직불제가 쌀값안정

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관련한 각종 법안 가운데 특히 여순사건과 한전공대, 예너지산업, 도서개발촉진 등 여러 관련 특별법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실국장이 직접 뛰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해 전남은 청렴도 2등급을 받아 많은 도민들이 흐뭇해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하고 실국 직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대선 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 확정

분란 소지·잡음 사전 차단
경선 방식 온라인 투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한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원활한 대선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 의원은 경선룰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 확정하는 것에 대해 “평정히 빠른 것”이라며 “조기에 확정해야 이후 분란의 소지나 잡음이 없고 당력을 집중하는 데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선룰 개정 범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룰을 최대한 존중하며 전체적 방향을

많이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보자 간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투표 방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반영해 오프라인 투표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전준위는 슈퍼워크를 지정해 일한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개표를 진행하는 등 경선 흥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전남권 의대 설립 환영”

전남시장 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15년간 동결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의과

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의 의과대학 신설을 발표했다”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던 전남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의료 인프라가 열악

했던 전남에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국립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가까운 곳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더 많은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